

# IT분야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를 배출하자!



최 성 남서울대/교수

**정** 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를 보면 첫째, 대내외적인 정책적 환경에서는 시장개방과 국제협력,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해외시장 진출 러시, 규제의 중심 축이 경쟁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세계의 시장환경도 e-Business의 확산, 시장주도를 위한 표준화 경쟁,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신제품·서비스의 경쟁적 출현되고 있다. 셋째, 기술환경도 핵심기술이 혁신에 의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 지향적인 주변기술의 등장과 성공으로 다양한 응용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경쟁적으로 출현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전략분야로서 IT산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발전의 방향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및 전 분야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확고한 입지를 조성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정

약력 : •76~80 기업은행 전산개발부 •81~83 한국전자계산(주) •83~

85 제주은행 전산실장 · 86~94 한국생산성본부 국장 · 현재 남서울대 교수  
부와 기업체, 학계,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혁신  
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혁신시스템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에  
IT 벤처기업 창출로서 신기술시장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과 21세기 신산업 창출로  
고용확대에 기여하였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주도적 역할로서, 인터넷과 정  
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은 R&D투자와  
인적자본이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지식  
경쟁시대로의 진입하였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디지  
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 등은 정보  
통신 기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타산업  
과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한 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서 정보통신 기술간의 상호 연계 및 융합화를 가속화시키면  
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출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  
회적 효용을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BT, NT 및 전통산업과  
의 접목을 통한 대폭적인 생산성향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국가정보전략 현황을 보면 미국은 “FITAC  
1999 및 IT2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기  
초연구를 강화하고, 특히 S/W와 첨단 컴퓨팅 등의 중점투  
자를 통하여 정보기술의 국제적 리더쉽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로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첨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IST프로그램의 “e-유럽2002 모두를 위한 정보사

회의 실천계획”을 통하여 서비스와 시스템구현,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콘텐츠, 원천기술 등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유럽전역을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국, 일본과의 경쟁력격차를 극복하고 유럽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IT21계획(2000-2005) 및 정보통신연구개발계획(2000-2010)”으로 향후 5년 이내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첨단 IT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정치경제산업의 사활을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역점을 두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산업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산업의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2000년 기준으로 29.6%로서 정보통신 기술산업이 국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국가 전략적인 큰 산업분야로서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분야이면서도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후세에 무엇을 하였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진정으로 정보처리전문가협회는 전산쟁이의 집단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모두가 협회 중심으로 뭉치고, 서로 돕고, 서로 밀고 끌어 주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의 선배 및 후배 중에서 국가를 이끌어 갈 책임감이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지도자를 배출될 것이다. 앞으로 IPAK은 단순하게 사교활동의 모임이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의 최고지도자를 양성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능력, 실력과 덕망이 있는 후배를 많이 영입

하여 협회의 위상을 키우면서, 회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국가를 이끌어 갈 전략을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전문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국가를 이끌고 갈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온다.